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범패' 있다

능화 스님, 8월 30일 · 10월 10~11일 '범패와 작법무' 시연

불교 무형문화재인 '범패와 작법무'가 인천세계도시축전(8월 7일~10월 25일)에서 외국인들에게 선을 보인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회장 능화)는 8월 30일 오후 5시 송도도시축전행사장(주 공연장에서, 10월 10~11일 오후 3시 월미문화(월미전통정원)에서 도시축전을 보기위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시연할 예정이다.

인천무형문화재 제10-가호 범패와작법무 예능보유자인 능화 스님(태고종 구양사 주지)은 이에 앞서 8월 15~21일 범패박물관(관장 능화) 주관으로 범사물 연주 시범과 한운기 선생의 범패 그림전, 인경 및 관음도 탁본 시범도 펼칠 예정이다.

능화 스님은 또 9월 10~11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제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인천대표로 인천기계공고 범패전승반 학생 78명을 출전시킬 계획이다. 능화 스님이 지도한 범패전승반 학생들은 제13회 대회에서 전국 2등(금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범패'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 진리의 소리라는 뜻이며 불교의식 진행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범패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의 영산회상 기원설, 묘음보살의 음악공양설과 중국 조식왕작성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으로 유학간 신라 진감 선사(830년 경 귀국하면서 경남 화동 쌍계사를 중심으로 보급했다. 이후 절에서 불리는 각종 의식 때 사용돼 왔으며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곡으로 불리온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 작법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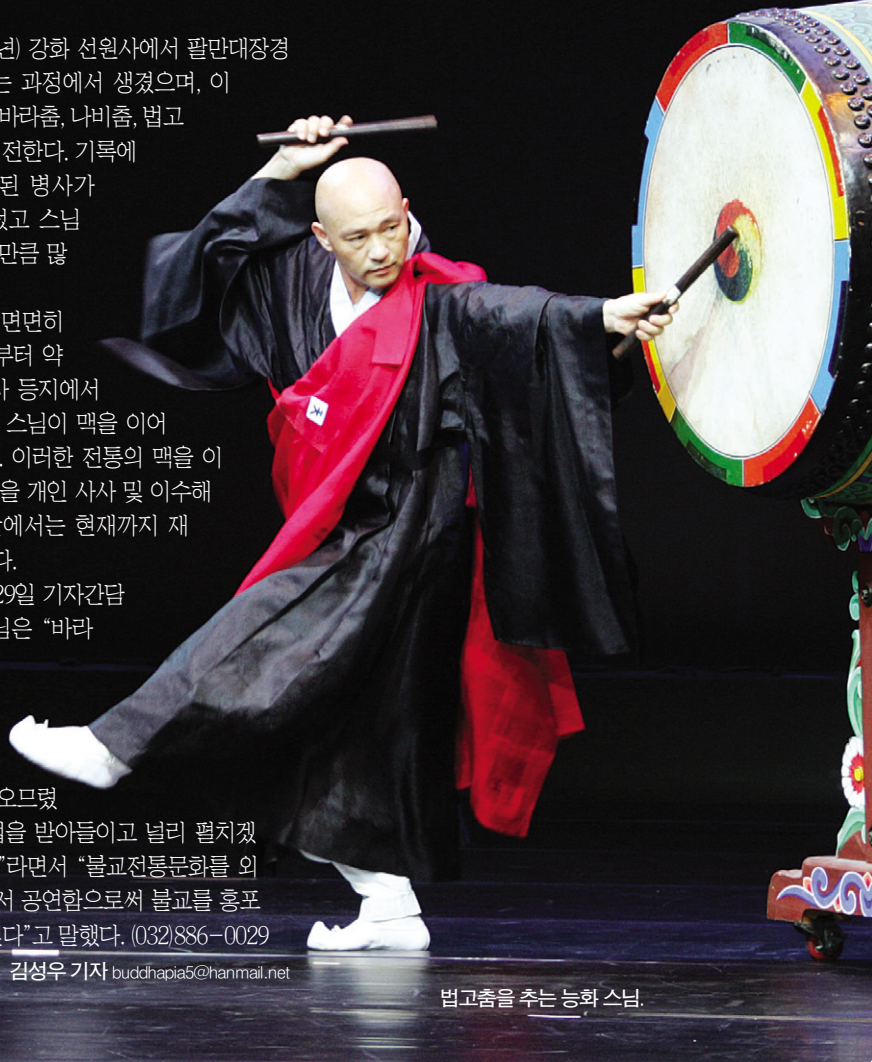
조선 태조 7년(1398년)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 이운의식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생겼으며, 이때 범패와 작법무인 바라춤, 나비춤, 범고춤 등이 행해졌다고 전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동원된 병사가 2000 여명에 이르렀고 스님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한다.

그후에도 범패는 면면히 이어오다가 1923년부터 약 사사, 묘향사, 구양사 등지에서 행해지던 것을 능화 스님이 맥을 이어 전승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맥을 이어 바라춤, 나비춤을 개인 사사 및 이수해 인천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현재까지 재의식을 병행하고 있다.

공연에 앞서 7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능화 스님은 "바라춤은 바다가 원형으로 우리 삶을 원만히 살기 위한 바람을, 왼손 오른손을 펼쳐내고 오므렸다가 하는 것은 불법을 받아들이고 널리 펼치겠다는 서원의 출사위"라면서 "불교전통문화를 외국인과 시민들 앞에서 공연함으로써 불교를 홍보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032)886-0029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범고춤을 추는 능화 스님.



'한국의 미소 반가사유상' 미국 간다

美 LA카운티박물관 한국실 재개관 전시에 석조보살입상 등 대어

'한국의 미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호)이 미국 시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오는 9월 초 미국 LA 카운티박물관 한국실 확장 재개관 전시에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석조보살입상, 해좌일통전도 등 주요 문화재 3점을 대어할 예정이다.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상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동반가상의 최대 걸작 가운데 하나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불교미술품이다.

석조보살입상은 경주 남산 장창골의 한 석실에서 옮겨 온 미륵삼존불 중 협시보살상으로 흔히 삼화평 미륵불이라고도 하며 신라 말기인 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 비례와 얼굴이 어린이와 같아 '애기 부

처'로 불리기도 한다. 해좌일통전도(海左壹統全圖)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로 국토의 전체적 윤곽이 정성기의 동국지도류와 비슷하고 독도를 표기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토를 잘 보여주는 문화재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계 17개국 박물관에 설치된 58개 한국실 중 최대 규모로 확장해 재개관하는 LA카운티박물관 한국실에 주요 문화재 3점을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대어 전시함으로써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륵반가상과 함께 최고 불상으로 꼽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예술센터에 전시된 바 있다. 김성우 기자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한국미술센터, 갤러리 이즈서 8월 11일까지 전시

그림시장 호황이었던 2007년 전후로 인기를 끌었던 100만원대 소품전이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끈다. 한국미술센터(관장 이일영) 주관으로 7월 29일~8월 11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 1, 2, 3층 전관에서 열리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전에는 4호에서 6호 크기의 소품 300여 점이 출품된다. 가격은 100만원대가 주종이며 가장 비싼 작품이 300만원이다. 참여 작가는 이종상 이인실 이철주 원문자 전래식 등 원로 중진에서 청년작가까지 187명에 이른다. 장르도 한국화(95명), 서양화(80명), 민화·문인화·한글서예(12명) 등을 망라한다.



최한동 작 '어찌지 봄바람'.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미술 애호가들과 작가의 만남이 새로운 창작열을 북돋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7년 노화랑에서 마련한 '100만원전'은 작품이 모두 팔려 추가 주문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앞서 2006년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서울대 미대 출신 작가 '60만원 소품전'의 구입경쟁률은 평균 15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7년을 기점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작품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이 경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는 하반기 미술시장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02)2003-8392 김성우 기자

'미술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세요'

선-아트스페이스, 8월 8~9일 '가족사랑' 전시

미술 체험을 통해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간 소통 계기를 마련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선-아트스페이스(원장 박경계)는 8월 8~9일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우리 가족 좌중우돌 첫 전시 '사랑을 보다'를 개최한다.

참여 가족들은 1단계 '내안의 나-자기 성찰의 시간'과 2단계 '사랑을 보다-우리 가족, 마음을 나누는 시간', 3단계 '사랑의 메시지-소망을 담은 시간'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미술 체험 뿐만 아니라 '비폭력

대화법'으로 유명한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소장의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대화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8일에는 캐서린 한의 비폭력 대화법 특강과 마인드 맵을 이용한 첫 번째 작품 '내안의 나-자기 성찰의 시간'이 열린다. 9일에는 대화법을 통한 두 번째 작품 '사랑을 보다-우리가족, 마음을 나누는 시간'과 소망상자를 이용한 세 번째 작품 '사랑의 메시지-소망을 담은 시간'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스페이스 선+'에서 4일간 전시된다. (02)732-0732 김성우 기자

법왕사, 월간 '불국토' 창간

대구 법왕사 부주지 효신 스님이 최근 불교 잡지 월간 <불국토>(7월호)를 창간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전국 규모의 잡지로 선을 보인 <불국토>는 불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예비불자와 초심불자들,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데 편집의 초점을 두고 있다. 7월 창간호에는 기획연재로 '불교 4대 성

지를 찾아서', 기획특집 '49재의 유래와 의미', '장인의 숨결' 대한민국 도예명장 천한봉 인터뷰 등이 게재됐다.

발행인 효신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포교지로서 신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두려울 때는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 ① 늙음·죽음·병들·슬픔·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 ② 기도·보시·공덕·효도·자비에 대한 가르침!
- ③ 참된 친구·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 ④ 바른 생각·바른 행동·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